

'26. 4. 24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교황 둘째형 자택 폭탄테러 위협 신고...폭발물 발견 안돼
 - 4.17 언론은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교황 레오 14세의 친형인 「존 프레보스트」 자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고 보도
 - ※ 당국은 최근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갈등 국면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해자를 추적 중이라 부언
- 美, 래퍼 「예」 유럽 공연 줄줄이 취소...反유대주의 논란 확산
 - 4.18 언론은 反유대주의 발언과 나치 찬양 논란을 빚은 미국 래퍼 「예(Ye)」의 유럽 투어가 각국 정부의 제재와 입국 금지 조치로 폴란드·영국 등에서 잇따라 취소·연기되며 파장이 확산 중이라고 보도
 - ※ 언론은 「예」가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에 “유대인을 상대로 데스콘3에 들어간다”는 등 反유대주의로 읽히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고 부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차량 돌진·흉기 복합 테러 발생으로 군사작전 확대
 - 4.19 외신은 이스라엘 방위군(IDF)이 북부 베이트세안 지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범인은 불법 입국한 팔레스타인인으로 밝혀졌다고 보도
 - ※ 軍은 인근 지역에 대한 상황 평가 후, 불법 침투기반 단독테러에 대해 즉각적인 군사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언

유럽

○ 英,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불상 물체 발견

- 4.18 영국 런던 경찰청은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발견된 수상 물체와 드론 공격 위협 영상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테러 부서가 조사 중이며, 현재까지 공공 안전 위험 증가는 없다고 발표
- ※ 언론은 해당 영상에는 이스라엘 대사관 사진 위에 표적이 표시되어 있고,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부언

○ 우크라이나, 키이우 총기 난사·인질극 테러 발생

- 4.19 외신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홀로시이우스키 지역에서 한 남성이 주거지 방화 후 총격하여 사망 6명, 부상 14명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다 특공대 진입 과정에서 사살되었다고 보도
- ※ 현지 경찰은 테러로 규정하고, 단독범 여부 및 조직 연계 가능성, SNS 등 온라인 활동 분석을 통해 사전 계획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부언

○ 러시아, “우크라이나의 테러 음모에 연루된 독일인 구금”

- 4.20 언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자국에서 우크라이나 정보요원의 사주를 받아 급조 폭발물(IED)을 활용한 테러 공격 음모에 연루된 독일인 여성과 중앙아시아 출신 남성을 체포하여 구금 중이라 보도
- ※ 테러에는 배낭안에 TNT 1.5kg 규모의 급조폭발물 활용을 계획하였으나 러시아의 탐지 장비가 폭발물을 탐지하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부언

아프리카

○ 우간다·콩고 軍, 반군(ADF)에 납치됐던 민간인 200여 명 구출

- 4.20. 외신은 우간다와 콩고 軍이 합동 군사 공세로 반군세력인 연합민주군*(ADF)의 거점을 타격하여 다수의 전투원을 사살 및 무기를 압수하고, 반군에 납치됐던 민간인 200여 명을 구출했다고 보도
- ※ 1994년 우간다에서 결성된 반군조직으로 ISIS에 충성을 맹세한 후 콩고와 우간다 국경에서 수년간 민간인을 공격·납치하는 등 수천 명의 피해자 발생

역사속 테러사건

스리랑카 교회 부활절 동시 다발 폭발 테러 사건

- '19. 4. 21. 부활절 오전 교회 등 스리랑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약 269명이 사망하고 500명 부상
 - ※ 9명의 테러범 폭발물 제조, 인구 밀집 시간대를 겨냥하여 파급력을 극대화
- 테러범들은 폭발물을 몸에 휴대하여 교회와 호텔 내부에서 동일 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를 감행, 정부 테러 대응 혼선 유발
 - ※ 사전 테러 정보 확보에도 대응 실패가 다수 인명피해 등 피해의 주요 원인
- 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하였으나 직접 지휘 여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, 스리랑카는 NTJ 등 자국 이슬람 극단주의를 주범으로 지목
 - ※ 일부에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격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

테러 상식

< 스리랑카 부활절 폭탄 테러 폭발물 특성 >

- (개요) 2019년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는 자살폭탄 방식으로 수행된 복합테러로, 비교적 은닉이 용이한 사제폭발물(IED)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다중시설 내에서 대량 피해를 유발한 것이 특징
- (구성)
 - ① 폭 약 부: 화학물질 기반 폭발성 물질로 충격 시 폭발
 - ② 기폭장치: 전기·충격 방식으로 폭발 유도
 - ③ 파편요소: 금속·볼트 등을 삽입하여 살상 범위 확대
- (의미)
 - ① 단순한 폭발이 아닌 “인체 이동형 무기”로 변형된 형태
 - ② 탐지 회피 및 동시다발 공격 가능성 증가
 - ③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험성 극대화 → 사전 탐지 및 출입 통제 중요